

SK케미칼, SK석유화학 분사

SK케미칼은 생명공학 집중 ... SKC도 SK모바일에너지 분리

SK케미칼이 12월1일부로 석유화학사업부문을 분사해 SK석유화학을 설립했다.

SK케미칼은 11월25일 주주총회에서 정윤용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SK석유화학 설립을 결의했으며 SK석유화학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와 DMT(Dimethyl Phthalate)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분사를 통해 생명공학과 정밀화학사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2004년 말 SK제약을 합병하고 2005년 바이오벤처 인투젠과 동신제약 지분을 매입했다.

또 2005년 10월에 설립한 베이징 생명과학 법인을 통해 관절염 치료제 트라스트, 혈액순환 개선제 기넥신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SKC도 리튬이온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해 SK모바일에너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수 기자>

<화학저널 2005/12/05>